

범죄두려움에 관한 다수준적 접근 : 주요 모델들의 검증

박 정 선* · 이 성 식**

국 | 문 | 요 | 약

이 연구는 2009년도 한국범죄피해조사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구성원들의 범죄두려움 및 그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주요 모델을 검증하고 있다. 이 연구는 개인수준의 변인을 고려하는 취약성/피해모델뿐 아니라 지역수준의 무질서모델, 사회통합모델, 그리고 지역사회경찰활동모델을 검증하는 다수준적 접근에 관심을 갖는다. 본 연구결과 개인수준변인들의 영향력이 크게 유의미하여 취약성/피해모델이 어느 정도 가장 크게 지지되었고, 아울러 무질서모델과 지역사회경찰모델도 지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통합모델에서는 지역구조적 특성으로 지역경제수준이외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변인은 없었으며, 그나마 지역경제수준도 사회통합모델과 기존 외국연구와는 다르게 지역경제수준이 높은 지역의 구성원들이 범죄두려움을 더 겪는 것으로 조사되어 그 지지도는 가장 낮았다. 이 연구를 통해 범죄두려움에 관한 기존의 주요 모델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개인수준의 변인들 이외에 지역수준의 변인들도 범죄두려움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다수준적 접근의 필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존 모델들에서의 주장과는 상이한 결과도 도출되는 바 앞으로 이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최신 모델의 구성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주제어 : 범죄두려움, 다수준적 접근, 취약성/피해모델

I. 서 론

범죄두려움은 삶의 질의 주요 지표로도 사용되듯이 우리의 삶과 정신건강에 중요한 사항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율은 낮은 편이지만 국민 과반수가 범죄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듯이(최인섭, 김지선, 1996) 범죄두려움은 실제

*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

범죄율과 독립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범죄두려움은 범죄현상 못지않게 중요한데, 범죄두려움은 사람들의 생활을 위축시키고 사회성원들 간에 불신감을 조장하며, 그로 인해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정책에 또 다른 주요 연구주제가 된다.

이 연구는 범죄두려움의 주요 원인을 밝히려고 한다. 범죄두려움은 여러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수준에서 접근할 수 있다. 그동안의 국내외 연구들을 보면 범죄두려움의 원인에 관해서는 취약성모델, 무질서모델, 사회통합모델 등 다양한 모델과 연구들이 제시되어 왔다(Taylor and Hale, 1986; Franklin et al., 2008).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존의 주요 연구모델들을 적용하여 어떠한 모델이 보다 설득력이 있고 어떤 요인이 중요한지를 통해 누가 왜 범죄두려움을 겪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그런데 개인특성요인에 주목하는 취약성모델과는 달리 무질서나 사회통합모델들은 범죄두려움의 원인으로 개인보다는 지역특성에 주목하고 있는데도 기존 연구들은 개인 혹은 지역의 각 수준에서 그것을 혼용하여 다루어 왔다는 점에서 보다 엄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그러한 이유로 이 연구에서는 그것을 개인과 지역 양 수준에서 다룸으로써 다수준적 접근을 시도하려고 한다.

이처럼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여러 모델들에 근거한 다양한 개인 및 지역수준의 요인들로 구성된 다수준적 모델을 구성하여 기존 모델들의 상대적 우위를 검증하려고 하며, 그 모델검증결과를 바탕으로 과연 어떠한 주요 원인이 범죄두려움을 설명하는가를 알아보고 그 결과를 근거로 범죄두려움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범죄두려움에 관한 주요 모델

1) 취약성모델

취약성모델에서는 개인의 범죄피해의 취약성이 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취약성에는 신체적 취약성과 사회적 취약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신체적으

로 힘이 부족한 여성이나 노인들이 더 두려움을 겪는다는 것이고(Clement and Kleiman, 1977; Braungart et al., 1980), 후자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소수인종, 혹은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사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피해에 노출됨으로 해서 더 두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Will and McGrath, 1995). 그 중에서 기존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요인이나 인종의 영향력은 뚜렷하지 않지만 주로 성과 연령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일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Warr, 1984).

취약성모델은 피해가설로 불리기도 하여 과거의 범죄피해경험이 범죄두려움의 또 다른 중요한 예측요인이라는 것을 강조한다(Skogan and Maxfield, 1981). 하지만 피해가설은 실제로 피해를 당하지 않은 상당수 사람들이 두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하는데, 실제로 여성이나 노인은 피해경험이 낮음에도 두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보면 엄밀히 말해 피해가설보다는 취약성모델이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간접피해가설에 의하면 직접적 범죄피해경험과 두려움의 관계는 큰 관련이 없고, 오히려 간접피해경험이 중요하여 주위로부터 간접적으로 피해경험을 접할 때 두려움에 더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Liska et al., 1988), 예컨대 TV로부터 범죄사건을 접하거나 취약한 주위친지와 자주 접촉하는 사람이 더 두려움을 겪는다는 주장이 있다(Skogan and Maxfield, 1981; Taylor and Hale, 1986). 이렇듯 실제 범죄피해보다는 개인취약성이나 간접피해경험으로부터 오는 피해위험의 가능성이 두려움에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 무질서모델

초기의 연구가 개인의 특성에 주목했다면 무질서모델에서는 개인의 특성보다는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으로서 지역무질서가 두려움의 원인이라고 본다(Lewis and Salem, 1986). Wilson과 Kelling(1982)의 깨어진 창이론에 따르면 무질서는 지역의 부적절한 사회통제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러한 무질서지역에서는 범죄가 통제되지 못해 범죄피해의 위험성을 느끼게 되고, 그러한 면이 두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지역무질서에는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가 있다. 물리적 무질서는 거리의 쓰레기나 벽의 낙서, 버려진 폐차 등의 징후를, 사회적 무질서는 거리의 불량배, 술

에 만취한 사람들의 모습, 매춘녀나 홈리스들이 눈에 띄는 것으로 각각 구분되기도 하는데 이것들은 두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지역무질서를 지역수준의 연구를 통해서도 살펴보았지만(Taylor and Hale, 1986; Rountree and Rand, 1996), 그것을 개인수준에서 개인들이 인지한 무질서의 측면으로 그 영향력을 주로 살펴보았는데(Covington and Taylor, 1991; LaGrange et al., 1992), 지역 및 개인 두 수준 모두를 고려한 Perkins와 Taylor의 연구(1996)에서는 개인이 인지한 무질서가 더욱 큰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을 보고했다. 한편 LaGrange와 동료들의 연구(1992)에서는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의 영향력을 비교했는데, 사회적 무질서가 물리적 무질서보다 보다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했다.

3) 사회통합모델

사회통합모델은 지역해체와 지역의 구성원들의 통합력 약화가 범죄두려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지역염려가설로도 불리는 이 모델은 구조적으로 해체된 지역에서 지역통합과 유대가 낮은 구성원들이 자신의 지역의 사회통제력이 낮다고 인식하게 되고, 그만큼 자신의 지역에서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보기 때문에 두려움을 겪는다고 주장한다(Taylor and Hale, 1986). 사회해체이론의 논의에서는 지역구조적으로 경제수준에서 열악하고 이동율이 높은 해체된 지역, 그리고 그로 인해 지역유대와 결속력이 약한 지역에서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여 왔는데(Sampson and Groves, 1989; Bursik and Grasmick, 1993), 사회통합모델은 그러한 이론을 근거로 하여 범죄두려움을 설명하려고 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보면 사회통합모델과 일치하게 사회통합수준이 높을 때 두려움은 낮다는 것을 제시한다(Skogan and Maxfield, 1981; Rountree and Rand, 1996).

하지만 Wilson(1996) 등의 학자는 지역유대와 통합이 범죄통제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빈곤하고 주 사회에 편입되지 못한 지역성원들은 범죄에 관용적이어서 유대가 높다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범죄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고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Bellair, 1997), 실제로 Villarreal과 Silva의 연구(2006)에서는 하층지역의 사회결속력이 높은 지역의 성원이 범죄두려움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러한 결과는 그 지역성원이 지역주민과의 잦은 접

축으로 오히려 범죄피해를 간접적으로 더 접했기 때문이라고 하여 이는 간접피해경험을 중시한 취약성모델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유대와 결속력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범죄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가의 집합효율성의 중요성이 제기되었다(Sampson et al., 1997). 집합효율성은 지역구성원들의 신뢰와 비공식적 통제력, 즉 교제와 참여를 중시하는 것으로, 기존 연구들은 구성원들이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교제하고, 또 범죄예방에 참여하면 할수록 범죄가 통제된다는 결과를 제시한다(Sampson et al., 1997; Sampson and Raudenbush, 1999; Morenoff et al., 2001). 집합효율성이 높은 지역은 이처럼 범죄가 통제됨으로 해서 그 지역성원들의 범죄두려움도 낮다고 볼 수 있는데, 집합효율성은 범죄발생이외에도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Gibson et al., 2002).

4) 지역사회경찰활동모델

지역사회경찰활동모델에서는 지역사회의 경찰활동이 범죄피해나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기존 두려움 연구들이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유대 등의 특성에 주로 주목한 것에 비해 공식적 사회통제인 경찰활동엔 큰 관심이 없었지만 공식적 경찰활동으로 지역사회경찰활동이 범죄와 두려움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Kelling and Coles, 1996; Skogan and Harnett, 1997)이 제기되면서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통적 경찰활동이 범인검거와 법집행에 주목했던 것에 반해 지역사회경찰활동은 범죄이외의 지역의 무질서라든지, 지역주민의 삶, 그리고 범죄두려움의 문제에 이르는 다양한 지역문제 현안에 관심을 갖는다(Skogan and Harnett, 1997). 지역사회경찰활동에서는 경찰이 대민봉사자로서 지역에 봉사하며 지역주민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구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에 주목한다. 범죄두려움의 문제도 지역사회경찰활동 측면에서 중요시 다뤄야 하는 해결되어야 하는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점에서 지역사회경찰활동이 활발할수록 그 지역주민의 범죄두려움은 낮을 것이라고 본다.

Skogan의 연구(1990)에서 지역사회경찰활동이 지역주민의 경찰에 대한 만족도

를 증가시키고 지역주민의 범죄두려움을 낮춘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후, Zhao와 동료들의 연구(2002)에서는 지역사회에 경찰이 얼마나 가시적인가가 두려움 감소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제시했고, 또한 Salmi와 동료들의 연구(2004)에서도 경찰의 가시성이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데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이들 연구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지역경찰이 주민에 가시화되고 활발한 활동을 벌일 때 두려움 해소에 기여한다는 것을 제시하는데, 국내에서도 이성식(2000a)은 지역사회경찰활동이 활발한 지역의 성원들이 범죄두려움을 덜 겪는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후 보다 최근의 연구들(Scheider et al., 2003; Roh and Oliver, 2005)에서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이 범죄두려움과 큰 관련이 없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한다.

2. 최근의 영향비교 연구들

그러면 앞에서 제시한 여러 모델들 중 어떠한 모델이 경험적 지지를 받는가? 여기서는 그 모델들의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다루었던 그동안의 연구결과들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그동안 연구를 보면 취약성모델보다는 무질서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예컨대 Carcach와 동료들의 연구(1995)에 따르면 지역의 무질서가 증가함에 따라 두려움의 크기가 증가하며, 이때 남녀의 두려움의 차이는 작아진다고 봄으로써 성과 같은 개인취약성 변인보다는 지역의 무질서가 더 중요함을 강조했다. McCarrell과 동료들의 연구(1997)에서도 범죄두려움은 무질서와 같은 지역특성에 의한 것이지 개인특성은 덜 중요하다는 주장을 한다.

지역의 영향력에 있어서는 사회통합보다는 무질서의 영향력이 다소 더 크다는 결과가 지배적이다. Kanan과 Pruitt의 연구(2002)에서는 지역수준의 무질서가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중요했지만 지역수준의 사회통합의 변인들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음을 제시했다. 국내연구에서도 이성식의 연구(2000b)에 의하면 개인이 인지한 사회통합과 유대의 영향력은 비록 약했지만, 지역경제가 낮고 이동율과 범죄율이 높은 지역의 사람들이 지역무질서를 인지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지역에서의 피해위험을 인지하게 되어 그로 인해 두려움을 더 겪는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Gibson과 동료들의 연구(2002)에서는 개인특성, 무질서, 그리고 사회통합변인들의 영향을 다룸에 있어 특별히 사회통합변인들은 개인수준의 집합효율성인지를 매개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했는데, 개인배경변인으로는 성, 연령, 수입이, 그리고 무질서와 사회통합 모두가 두려움에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통합변인은 집합효율성인지를 매개로 두려움에 영향을 미쳤으나 그럼에도 여러 요인들 중에서 무질서가 사회통합, 그리고 집합효율성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나타냈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McCrea와 동료들의 연구(2005)에서도 사회통합모델의 변인들은 두려움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개인특성이나 지역무질서가 더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보다 최근에 Franklin과 동료들(2008)은 취약성, 무질서, 그리고 사회통합의 세 모델을 검증했는데 각 모델의 주요 요인들이 모두 피해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것을 제시했지만 그 중에서도 지역무질서의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에서 무질서나 사회통합, 그리고 집합효율성 등은 주로 개인수준에서 다루어져 왔고 그것을 거시지역수준에서 다룬 연구는 몇 연구를 제외하곤(Kanan and Pruitt, 2002; Wyant, 2008) 드물다. 앞서 Franklin과 동료들의 연구에서도 개인취약성, 지역무질서나 사회통합의 변인들을 모두 개인수준에서 다루듯이 대부분의 무질서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개인이 인지한 개인수준에서의 영향력을 다루고 있다. 그럼에도 지역수준의 무질서를 다룬 최근의 Wyant의 연구(2008)에서는 지역의 무질서가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Villarreal과 Silva의 연구(2006)에서는 무질서가 범죄피해에 영향을 주지만 범죄두려움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Roh와 Oliver의 연구(2005)에서는 지역사회경찰활동과 범죄두려움과의 관계를 기존의 모델과 함께 다루었는데, 기존의 주요 세 모델 중 취약성모델에서의 변인들의 설명력은 약했으나 무질서인지(무질서모델)와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사회통합모델)의 영향력은 컸으며, 본래 지역사회경찰활동의 변인은 두려움과 관계가 있었으나 무질서인지나 지역에 대한 만족도가 통제된 후 그 요인들과 함께 영향력을 비교했을 때 그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음을 제시했는데, 저자들은 무질서와 지역만족도가 외적 요인임을 강조하면서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영향력을 부정했다. 하지만

이 연구결과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이 무질서인지나 지역에 대한 만족도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지역사회경찰활동이 무질서 해소와 주민들의 비공식통제 참여의 증가를 가져와 결국 두려움 감소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Silver and Miller, 2003). 실제로 국내 이성식의 연구(2000b)에서도 지역사회경찰활동이 사회무질서를 해결하고 경찰에 대한 만족도를 증가시켜 두려움의 감소에 기여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한편 Ferguson과 Mindel(2007)은 모델 간의 우위에 관한 경쟁보다는 통합모델을 구성하려고 했는데, Ferraro(1995)의 위험해석모델에서와 같이 피해위험인지가 두려움의 궁극적인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성, 연령과 같은 개인변인, 피해경험, 그리고 무질서와 지역만족도(사회통합변인), 집합효율성, 경찰의 가시성이 피해위험인지에 영향을 주고 그것을 매개로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는 모델을 제시했다. 그 결과에서는 위험해석모델에서와 같이 두려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물론 피해위험인지가 가장 컸지만 그 외에도 성, 개인피해경험, 지역만족도, 무질서가 두려움에 영향을 주었고, 이때 성, 개인피해, 지역만족도와 무질서는 직접적으로 그리고 피해위험인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으며, 이때 경찰가시성은 집합효율성에 영향을 주어 간접적으로, 그리고 집합효율성은 지역만족도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두려움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 모델 검증에서는 지역변인들을 지역수준이 아닌 개인이 인지한 점수로 측정한 점에 한계가 있다.

Ⅲ. 연구가설 및 방법

1. 연구모델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취약성, 무질서, 사회통합모델, 그리고 지역사회경찰활동모델에 근거하여 개인특성들(성, 연령, 교육수준, 수입, 개인범죄피해)과 지역구조적 특성(지역경제수준과 지역이동성), 지역무질서, 집합적 효율성으로서의 지역유

대와 비공식통제참여,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경찰활동이 개인의 범죄두려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루려고 한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지역수준의 독립변인들을 개인이 인지한 개인 값이 아닌 지역수준에서 다름으로써 다수준적 접근을 시도한다는 점이다. 이 연구의 다수준적 모델은 <그림 1>에서와 같으며 이 연구는 여러 모델들의 상대적 우위의 검증에 관심을 갖는다.

취약성모델에 따르면 여성, 노인, 그리고 교육수준과 수입이 낮은 사람들, 그리고 범죄피해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더 겪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취약층의 사람들은 범죄피해를 더 당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피해를 직접적으로 당하지 않고도 범죄피해에 취약하거나 또는 피해를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해서 두려움을 더 겪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아울러 직접적으로 범죄피해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범죄 두려움을 더 겪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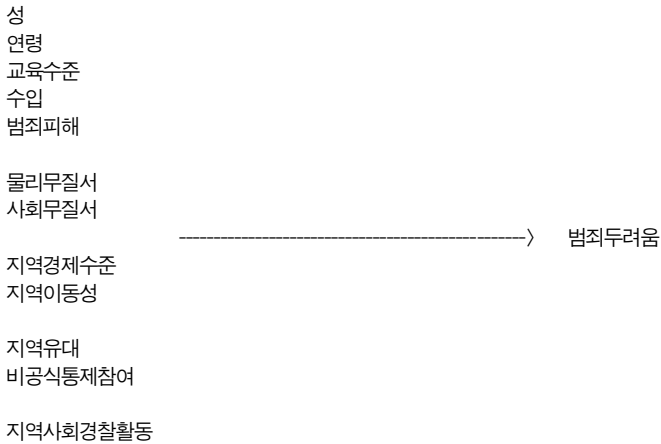
깨어진 창이론에 의하면 지역의 무질서가 두려움의 주요 원인일 것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지역의 무질서 징후로 구성원들이 범죄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지역구성원들의 이주율이 높고, 그럼으로 지역구성원들의 유대가 낮아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Skogan, 1990), 이처럼 범죄두려움의 원인은 지역무질서이고, 오히려 지역유대의 약화는 두려움의 결과라고 본다.

그러나 사회통합이론에서는 지역무질서가 아닌 지역유대나 비공식통제참여가 두려움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본다. Sampson과 Raudenbush(1999)의 주장에 따르면 지역무질서나 범죄는 모두 공통된 원인에 의해 설명된다고 했는데, 지역유대와 비공식적 통제력이 낮은 지역에서 무질서하고 또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무질서와 범죄와는 허위관계가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입장대로라면 지역무질서(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보다는 지역유대와 비공식통제참여가 범죄두려움에 보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사회해체이론에 근거하여 지역구조적 특성이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런데 기존 논의들에 근거해 본다면(Sampson and Groves, 1989; Bursik and Grasmick, 1993) 지역구조적 요인은 지역과정적 특성인 사회통합요인들에 의해 매개되어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지역경제수준과 이동성을 다루기로 하는데, 즉 지역경제수준이 낮고 이동성이 높은 지역에서 지역유대

와 비공식통제참여가 낮게 되어 범죄두려움을 더 겪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한편 지역사회경찰활동모델에 따르면 지역의 경찰활동이 활발할수록 두려움을 덜 겪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경찰활동론이나 앞서 기존 연구들에서 볼 때, 지역의 경찰활동은 지역무질서, 지역유대, 비공식통제참여에 영향을 줌으로 해서 범죄두려움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거나(Silver and Miller, 2003; Frerguson and Mindel, 2007), 혹은 그 영향이 낮아 상대적으로 그 직접적 영향력은 낮을 수 있다고 예측한다(Roh and Oliver, 2005).



〈그림 1〉 범죄두려움에 관한 다수준 모델

2. 연구자료와 분석방법

본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09년도에 실시한 2008년도 한국의 범죄피해 자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의 표집틀은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에 근거한 총 254,601개의 조사구이다. 이 조사구들은 16개의 시도 및 동부/읍면부를 고려하여 확률비례계통추출방식으로 추출되었으며 추출된 조사구에서 전국적으로 4,500 가구를 표집한 후 표본가구내 만 14세이상의 가구원 전체를 조사하였다. 결과적으로는 4,710개의 가구에서 총 10,671명이 조사되었으며 본 연구는 이 자료를 사용하

였다.

다수준분석(HLM)은 일반회귀분석과 차별화된다.

공식1: 일반회귀식

$$y_i = \beta_0 + \beta_1 x_1 + \beta_2 x_2 + \cdots + \beta_q x_q + \gamma_1 w_1 + \gamma_2 w_2 + \cdots + \gamma_q w_q + e_i$$

여기에서 x 는 수준1의 예측변수, β 는 수준 1의 회귀계수, w 는 수준2의 예측변수, γ 는 수준 2의 회귀계수

일반최소자승(OLS) 회귀분석은 두 개의 수준에서 관찰된 변수들이 종속변수 y_i 에 미치는 영향을 특별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위의 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속변수 y_i 에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영향력들은 각 수준의 회귀계수 β 와 γ 에 의해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수준 2의 변수 w 의 영향력이 종속변수 y_i 에 직접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수준 2의 영향력이 개인에 직접 작용할 경우엔 생태학적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즉 집단의 수준의 특성을 통해 개인의 특성을 유추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수준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회귀식을 쓴다.

공식2: 다수준회귀식

$$y_{ij} = \beta_{0j} + \beta_{1j} x_{1j} + \beta_{2j} x_{2j} + \cdots + \beta_{pj} x_{pj} + r_{ij}$$

$$\beta_{0j} = \gamma_{00} + \gamma_{01} w_{1j} + \gamma_{02} w_{2j} + \cdots + \gamma_{0q} w_{qj} + u_{0j}$$

⋮

$$\beta_{pj} = \gamma_{p0} + \gamma_{p1} w_{1j} + \gamma_{p2} w_{2j} + \cdots + \gamma_{pq} w_{qj} + u_{pj}$$

여기에서 x 는 수준1의 예측변수, β 는 수준 1의 회귀계수, w 는 수준2의 예측변수, γ 는 수준 2의 회귀계수

다수준분석에서 종속변수 y_{ij} 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들은 수준 1에서

측정된 변수들 뿐이다. 수준 2에서 측정된 독립변수들은 종속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다만 각 집단별 회귀식의 절편 β_{0j} 즉 집단의 평균에만 영향을 준다. 또한 각 모수의 표준오차를 추정하는 방식도 좀 더 견고한 방식으로 하게 되어 모수 추정에 있어 보다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다.

3.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범죄두려움은 정서적 기반의 두려움으로 정의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즉 평소에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는가로 측정한다. 하지만 실제로 기존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측정은 일반적인 위협에 대한 평가로, 예컨대 “당신은 당신의 동네 외출시나 집에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가”의 안전도 혹은 피해위험인지에 대한 평가였고(Skogan and Maxfield, 1981; Lewis and Salem, 1986; Covington and Taylor, 1991) 그러한 측정은 보다 최근의 연구에서도 사용된다(Gibson et al., 2002; McCree et al., 2005). 하지만 이후의 많은 논의들에서는 정서적 두려움과 피해위험에 대한 인지가 각각 구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LaGrange et al., 1992; Ferraro, 1995; Kanan and Pruitt, 2002). 그리고 Ferraro(1995)는 피해위험에 대한 인지가 정서적 두려움에 영향을 준다고 봄으로써 두 개념을 구분했고 최종적으로는 정서적 기반 두려움을 범죄두려움으로 보았다. 따라서 엄밀한 좁은 의미에서 보면 범죄두려움은 피해가능성에 대한 평가보다는 정서적 두려움으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보다 최근에는 범죄두려움을 일반적인 측정보다는 보다 구체적으로 범죄특수적 피해가능성에 대한 정서적 두려움으로 측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예컨대 Rountree(1998)는 폭력과 재산피해 각각의 구체적인 범죄피해 항목에 대한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측정했고, Salami와 동료들의 연구(2004)에서는 열네 개의 범죄항목에 있어서의 피해에 대한 염려로, 그리고 Franklin과 동료들의 연구(2008)에서도 일곱 개 항목의 구체적인 범죄피해에 대한 정서적 두려움으로 측정했다. 이런 측정방법은 구체적인 피해항목을 통해 두려움에 접근할 뿐만 아니라 그 항목의 범죄가능성외에 그 피해가능성에 대한 정서적 두려움을 질문한 점에서 바람직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

구에서도 아홉 가지의 구체적인 범죄피해 문항에 대해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는지로 측정하기로 한다. 절도, 강도, 폭행, 사기, 성폭력, 기물파괴, 주거침입, 스토킹, 그리고 주민번호도용 등의 항목에 대해 각각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alpha=.935$).

본 연구의 독립변인으로 개인특성요인들은 성별(여자=0, 남자=1), 연령은 10대(1점)부터 70대(1-7점)까지, 그리고 교육수준은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이상’(1-6점)으로 측정하였고, 개인수입은 개인의 월평균소득으로 ‘없음’, ‘100만원 미만’, ‘100-200만’, ‘200-300만’, ‘300-500만’, ‘500-1000만’, ‘1000만 이상’의 일곱 항목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범죄피해경험은 지난 일년 동안의 범죄피해의 경험에 있는지의 여부(없음=0; 있음=1)로 측정하였다.

지역구조적 특성으로 지역경제수준은 위의 개인소득이 아니라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질문하고 지역별로 평균값을 산출하여 점수화하였고, 아울러 지역이동성은 응답자들의 현 동네에서의 거주년수(이후 변수명칭을 지역거주기간으로 함)를 질문하고 지역별로 평균값을 산출하여 측정하였다.

지역무질서는 기존 논의들에 근거하여(Taylor and Hale, 1986; LaGrange et al., 1992)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로 나누고, 물리적 무질서는 동네환경에 대해 “주변에 내버려진 물건이나 쓰레기 더미가 널려있다”, “후미진 곳이나 공터가 많다”, “냄새나 소음으로 쾌적하지 않다”의 세 문항을($\alpha=.791$), 사회적 무질서는 우리 동네는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무리지어 다니는 불량청소년이 많다”, “큰소리로 다투거나 싸우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의 세 문항을 질문하고 이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alpha=.784$).

지역유대는 지역구성원들과의 친밀도와 상호협조로 측정을 하여(Sampson and Groves, 1989; Gibson et al., 2002), “나는 대개 어디까지가 우리 동네인지 알 수 있다”, “나는 대체로 누가 동네아이들인지 알 수 있다”, “나는 급히 돈을 빌릴 수 있는 이웃이 있다”, “우리 동네는 이웃끼리 서로 잘 돕고 신뢰한다”의 네 문항을 질문하고 이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alpha=.795$).

비공식통제참여는 Sampson과 동료들의 논의(1997)에 근거하여 그와 유사하게 주로 범죄예방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가를 중심으로 측정하기로 하는데, “동네 아이들이 낯선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어떻게라도 도와줄 것이다”, “여학생이 불량배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면 어떤 방식이라도 도와줄 것이다”, “이웃들끼리 범죄예방을 위해 자율방범대를 조직한다면 방범대원으로 지원할 것이다”,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의 네 문항을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alpha=.795$).

지역사회경찰활동은 지역의 공식적 경찰활동과 지역주민과의 신뢰관계를 중심으로 측정하는데(Bursik and Grasmick, 1993), 이에 “우리 동네 경찰은 순찰활동을 잘 하고 있다”, “우리 동네 경찰은 범죄사건이 발생하여 신고하면 즉시 출동할 것이다”, “우리 동네 경찰은 범죄사건을 신고하면 범인을 반드시 잡아줄 것이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경찰활동에 협조적이며 경찰을 신뢰한다”의 네 문항을 질문하고 각각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alpha=.851$).

여기서 지역무질서와 지역유대, 지역비공식통제, 지역사회경찰활동 등의 지역변인들은 지역별로 평균값으로 지역값을 산출하도록 하였고, 모델분석에서는 이들 지역값의 지역변인들을 사용하도록 한다.

IV. 분석결과

1.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표 1>은 본 연구에서 다루는 변인들에 대한 기술적 통계 분석의 결과를 제시한다. 종속변인으로 다룰 범죄두려움은 9-45범위에서 평균값이 22.6으로 중간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개인수준변인(1수준)으로 조사대상자 성별은 남자 5112명(47.91%), 여자 5559명(52.09%)으로 여자가 다소 많았고, 연령은 10대(1점)부터 70대(7점)까지에서 평균 3.94였다. 교육수준은 1-6범위에서 평균값이 3.86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수입은 1-7점에서 평균이 3.97이었다. 범죄피해의 경험자는 808명으로

전체의 7.57%이었다. 지역수준변인(2수준)으로 지역구조적 특성변인 중 지역경제 수준은 1.83-6.12범위에서 평균값이 3.85이었고, 지역거주기간은 0.50-65.11범위에서 평균값이 14.79년수 였다. 물리적 무질서는 3.52-13.82범위에서 평균값이 7.80으로 다소 낮았고, 사회적 무질서는 3.21-12.50범위에서 평균값이 7.63이었다. 지역유대값은 6.75-19.55범위에서 평균값이 12.90이었고, 지역비공식통제활동에의 참여는 6.71-18.39범위에서 평균값이 13.06으로 제시되어 사회통합변인들의 점수는 다소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경찰활동은 8.44-18.36범위에서 평균값이 12.58로 다소 낮았다.

〈표 1〉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

	변수명	사례수	평균(빈도)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개 인 수 준 변 인	범죄피해두려움	10671	22.60	7.44	9.00	45.00
	성별	10671	여자 5559(52.09%) 남자 5112(47.91%)	0.50	0.00	1.00
	연령	10671	3.94	1.76	1.00	7.00
	교육수준	10671	3.86	1.20	1.00	6.00
	개인수입	10671	3.10	1.39	1.00	7.00
	범죄피해	10671	없음 9863(92.43%) 있음 808(07.57%)	0.26	0.00	1.00
	변수명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지 역 수 준 변 인	지역경제수준	425	3.85	0.82	1.83	6.12
	지역거주기간	425	14.79	13.80	0.5	65.11
	물리적무질서	425	7.80	1.58	3.52	13.82
	사회적무질서	425	7.63	1.57	3.21	12.50
	지역유대	425	12.90	2.17	6.75	19.55
	비공식통제참여	425	13.06	1.45	6.71	18.39
	지역사회경찰활동	425	12.58	1.39	8.44	18.36

2. 범죄두려움의 변량분석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범죄두려움의 변량이 얼마나 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변량분석의 결과는 <표 2>에 제시된다. HLM으로 변량분석을 해 본 결과 개인수준(수준1)의 변량이 약 82.39%인데 비해 지역수준(수준2)의 변량은 약 17.61%로 나타나 개인과 지역이 약 5:1의 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지역수준의 변량이 상당히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다수준 분석을 위한 근거가 된다. 즉 지역수준에서의 변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변량의 원인을 찾아보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2> ANOVA 표 (HLM): 범죄두려움 변량분석표

변수	범죄두려움 (425읍면동)
고정효과	
전체평균 Y00 (표준오차)	22,504 (0,1667%)
랜덤효과	
지역간 ν 0j	9,844(17.61%)
지역내 nj	46,043(82.39%)
전체 Y00	55,89(100%)
카이제곱	2601,695***
자유도	424
Deviance	71919,833

3. 범죄두려움에 관한 모델들의 검증

여기서부터는 본 연구에서 주목하듯이 범죄두려움에 관한 주요 모델들을 검증해보기로 한다. 우선 취약성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개인수준에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개인수입 및 범죄피해경험을 독립변인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보면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들의 평균 두려움은 22.885점으로 나타났다. 이 점

수를 기준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3.677점 정도 낮았고, 연령이 10년 단위로 높아질수록 두려움이 -0.349점 정도 낮아졌으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두려움이 0.570점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모두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했다. 이에 비해 개인수입은 통계적인 유의성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연령과 교육수준의 경우 본 연구의 예측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오히려 젊은층일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피해위험성과 두려움을 더 느낀다는 것을 제시한다. 한편 피해경험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두려움은 2점 정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b=2.010$) 통계적 유의도도 상당히 높았다.

〈표 3-1〉 범죄두려움에 관한 취약성모델 검증결과

고정효과: 범죄두려움		회귀계수	표준오차	β	T-ratio	자유도	P 값
절편(B0)	G00	22,926	0,468		48,983	424	0,000
성별(B1)	G10	-3,677	0,147	-0,247	-25,024	10665	0,000
연령(B2)	G20	-0,349	0,050	-0,083	-6,960	10665	0,000
교육수준(B3)	G30	0,570	0,078	0,092	7,316	10665	0,000
개인수입(B4)	G40	0,125	0,069	0,023	1,814	10665	0,069
범죄피해(B5)	G50	2,256	0,250	0,080	9,026	10665	0,000
확률효과		표준편차	변량요소		자유도	카이제곱	P 값
절편	U0	2,941	8,648		424	2528,304	0,000
범죄두려움	R	6,475	41,929				
Deviance	=	70917,08	(DF=2)				

한편 HLM에서는 표준오차에 대한 계산이 상대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출력하지 않으나 독립변수의 상대적 중요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작업을 통해 회귀계수를 표준화시켜 본 결과, 성별의 영향력이 가장 커서 $\beta=-0.247$ 의 값을 보였고, 다음이 교육수준($\beta=0.092$), 연령($\beta=-0.083$), 피해경험($\beta=0.080$)의 순으로 나타났다. 변환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비표준화된 회귀계수상으로는 피해경험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었으나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그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이는 피해경험의 표준편차가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의미하며 실

제로도 피해경험이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다는 점에서 범죄피해경험과 같이 편차가 적은 변수는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그 효과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개인의 취약성에 근거한 취약성변인들은 개인수입만 빼고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성과 범죄피해의 경우만 취약성모델과 일치함을 제시했다.

두 번째 무질서모델은 개인의 특성보다는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에 주목한다. 그 결과는 <표 3-2>에서와 개인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오직 지역수준의 무질서 변인만을 고려할 때의 평균 두려움은 22.507점으로 나타났다. 이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물리적 무질서의 정도가 1단위 증가할 때마다 두려움의 정도는 0.072점 증가하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이에 비해 사회적 무질서의 경우엔 무질서의 정도가 1단위 증가할 때마다 두려움의 정도가 0.872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람들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거리의 쓰레기나 소음보다는 사회적 무질서들을 통해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로 무질서모델은 나름대로 지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3-2〉 범죄두려움에 관한 무질서모델 검증결과

고정효과: 범죄두려움		회귀계수	표준오차	β	T-ratio	자유도	P 값
절편	G00	22,507	0,152		148,529	422	0,000
물리적무질서	G10	0,072	0,146	0,024	0,496	422	0,620
사회적무질서	G20	0,872	0,150	0,282	5,796	422	0,000
확률효과		표준편차	변량요소		자유도	카이제곱	P 값
절편	U0	2,802	7,854		422	2226,037	0,000
범죄두려움	R	6,785	46,037				
Deviance	=	71843,55	(DF=2)				

세 번째의 사회통합모델의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으로서 지역경제수준과 지역이동성(지역거주기간)의 영향력, 그리고 지역과정적 특성

으로서 지역유대와 비공식통제참여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먼저 <표 3-3-1>은 지역사회 구조적 특성 변인들의 영향력을 제시하는데, 지역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범죄두려움은 높아지고($b=0.859$), 지역에서의 거주기간이 길면 길수록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적어지며($b=-0.060$) 그 영향력은 통계적으로도 $p<.001$ 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수준과 지역거주기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보면 지역거주기간의 β 값이 -0.101 로 지역경제수준의 β 값 0.093 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지역이동성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3-3-1> 범죄두려움에 관한 사회통합모델 검증결과(지역구조)

고정효과: 범죄두려움		회귀계수	표준오차	β	T-ratio	자유도	P 값
절편	G00	22,480	0,155		144,922	422	0,000
지역경제수준	G10	0,859	0,211	0,093	4,069	422	0,000
지역거주기간	G20	-0,060	0,016	-0,101	-3,737	422	0,000
확률효과		표준편차	변량요소		자유도	카이제곱	P 값
절편	U0	2,866	8,213		422	2257,233	0,000
범죄두려움	R	6,785	46,039				
Deviance	=	71862,59	(DF=2)				

다음으로는 과연 이러한 구조적 영향력이 지역과정변인들에 의해 매개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적 변인과 지역과정변인들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했다. 그 분석 결과 <표 3-3-2>를 보면 구조적 특성모델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던 지역거주기간이 그 영향력에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 앞서 지역거주기간의 영향력은 β 값을 기준으로 볼 때 지역경제수준의 효과보다 더 컸었는데, 이 결과에서는 그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아 지역거주기간의 효과가 지역유대와 비공식통제참여에 의해 매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실제로 여기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지역거주기간이 높을수록 지역유대와 참여도는 높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는 정작 과정적 변인들인 지역유대와 비공식통제참여가 유의미하지 않아 사회통합모델을 지지하지 못하는 것을 제시했다. 비공식통제참여의 영향은 매우 낮았고, 지역유대의 경

우는 $p < .10$ 수준에서만 유의미했다. 지역구조변인으로 지역경제수준의 영향력은 여전히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했지만 사회통합모델의 예측과는 달리 두려움에 정(+)적인 영향력을 가졌다.

〈표 3-3-2〉 범죄두려움에 관한 사회통합모델의 검증결과(지역구조+지역과정)

고정효과: 범죄두려움		회귀계수	표준오차	β	T-ratio	자유도	P 값
절편	G00	22.482	0.154		145.892	420	0.000
지역경제수준	G10	0.933	0.215	0.101	4.333	420	0.000
지역거주기간	G20	-0.020	0.024	-0.034	-0.825	420	0.410
지역유대	G10	-0.295	0.155	-0.079	-1.903	420	0.057
비공식통제참여	G20	-0.008	0.146	-0.001	-0.052	420	0.959
확률효과		표준편차	변량요소		자유도	카이제곱	P 값
절편	U0	2.849	8.118		420	2226.103	0.000
범죄두려움	R	6.785	46.039				
Deviance	=	71861.24	(DF=2)				

네 번째의 지역사회경찰활동모델을 위해서는 <표 3-4-1>에서와 같이 지역사회경찰활동의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다. 그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사회경찰활동이 활발할수록 범죄피해두려움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923$). 한편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영향력이 지역무질서와 지역유대 및 비공식 통제참여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네 가지의 과정적 변인들을 추가한 결과는 <표 3-4-2>에 제시되고 있다. 그 결과를 보면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영향력은 지역무질서와 사회통합변수에 의해 일부효과만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영향력 변화를 살펴보면 회귀계수값은 $b = -0.923$ ($\beta = -0.341$)에서 $b = -0.543$ ($\beta = -0.094$)로 약 41.1% (β 값 상으로는 72.4%)나 감소하였다. 실제로 본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지역사회경찰활동은 지역무질서 변인들에 부(-)적으로, 지역유대와 비공식통제참여에 정(+)적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영향력은 여전히 직접적이고,

또한 매개변수들 가운데는 사회적 무질서만이 통계적인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영향력을 보면 그것이 직접적이고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여 지역사회경찰활동모델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영향력이 매개될 것이라는 가설은 크게 지지되지는 못한 것을 제시한다.

〈표 3-4-1〉 범죄두려움에 관한 지역사회경찰활동모델 검증결과

고정효과: 범죄두려움		회귀계수	표준오차	β	T-ratio	자유도	P 값
절편	G00	22,503	0,155		144,772	423	0,000
지역사회경찰활동	G10	-0,923	0,149		-6,211	423	0,000
확률효과		표준편차	변량요소		자유도	카이제곱	P 값
절편	U0	2,883	8,309		423	2316,777	0,000
범죄두려움	R	6,785	46,033				
Deviance	=	71858,34	(DF=2)				

〈표 3-4-2〉 범죄두려움에 관한 지역사회경찰활동과 그 매개변인들의 검증결과

고정효과: 피해두려움		회귀계수	표준오차	β	T-ratio	자유도	P 값
절편	G00	22,508	0,147		152,872	419	0,000
물리적무질서	G10	0,134	0,142	0,027	0,942	419	0,347
사회적무질서	G20	0,538	0,175	0,107	3,066	419	0,003
지역유대	G30	-0,178	0,113	-0,047	-1,570	419	0,117
비공식통제참여	G40	0,211	0,145	0,039	1,454	419	0,147
지역사회경찰활동	G50	-0,543	0,160	-0,094	-3,404	419	0,001
확률효과		표준편차	변량요소		자유도	카이제곱	P 값
절편	U0	2,719	7,391		419	2118,428	0,000
피해두려움	R	6,785	46,033				
Deviance	=	71825,14	(DF=2)				

4. 전체모델의 검증

지금까지는 취약성모델에서 시작하여 지역사회경찰활동모델까지 네 개의 모델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이들 모델들에서 사용된 변수들을 모두 회귀식에 넣어 분석해봄으로써 범죄두려움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무엇이고 각 모델의 상대적 효과는 어떠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4>의 결과를 보면 개인수준변인들의 영향력은 <표 3-1>에서의 결과와 거의 유사한데, 개인수입을 제외하고 모든 변인들이 통계적 유의도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성별은 남자보다는 여자가($b = -3.665$), 연령은 낮을수록($b = -0.333$), 교육수준은 높은 사람들이($b = 0.537$), 끝으로 범죄피해경험이 있는 사람들이($b = 2.232$) 범죄두려움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회귀계수값을 보면 단연 성별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는데 β 값은 -0.246 으로 가장 컸다. 그 다음이 교육수준($\beta = -0.087$), 범죄피해경험($\beta = 0.0793$), 연령($\beta = 0.0790$) 순이었다.

지역수준변인들을 보면 총 일곱 개의 변인들 가운데 지역거주기간, 지역유대 및 비공식통제참여를 뺀 네 개의 변수가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경제수준이 높을수록($b = 0.706$), 물리적 무질서($b = 0.323$)와 사회적 무질서($b = 0.414$)의 정도가 심할수록, 그리고 지역사회경찰활동이 낮을수록($b = -0.437$) 범죄두려움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면, β 값 상으로 사회적 무질서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 = 0.083$) 그 다음이 지역의 경제수준($\beta = 0.077$)과 지역사회경찰활동($\beta = -0.076$), 물리적 무질서($\beta = 0.066$) 순이었다. 이 결과는 무질서모델과 지역사회경찰활동모델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예측과는 달리 사회통합모델의 영향력은 미약했고, 또한 사회통합모델의 예측과는 달리 경제수준이 높은 지역의 성원들이 범죄두려움을 더 경험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표 3-1>에서부터 <표 4>까지의 Deviance값을 통한 모델비교에서도 보이듯 모든 변수를 총 망라한 총모델(70848.61)을 제외하고는 취약성모델 자료의 모델적합성(70917.08)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무질서모델(71861.24), 지역사회경찰활동모델(71858.34) 그리고 사회통합모델(71861.24)이 따랐다. 이와 같이

볼 때 범죄두려움은 개인수준의 변인이 지역수준의 변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범죄두려움에 관한 전체모델 검증결과

고정효과: 범죄피해두려움		회귀계수	표준오차	β	T-ratio	자유도	P 값
절편(B0)	G00	23.094	0.462		49.941	417	0.000
지역경제수준	G01	0.706	0.216	0.077	3.266	417	0.002
지역거주기간	G02	0.016	0.023	0.027	0.704	417	0.481
물리적무질서	G03	0.323	0.150	0.066	2.160	417	0.031
사회적무질서	G04	0.414	0.177	0.083	2.331	417	0.020
지역유대	G05	-0.080	0.144	-0.021	-0.558	417	0.577
비공식통제참여	G06	0.185	0.130	0.035	1.420	417	0.156
지역사회경찰활동	G07	-0.437	0.151	0.076	-2.891	417	0.005
남성(B1)	G10	-3.665	0.147	-0.246	-24.914	10658	0.000
연령(B2)	G20	-0.333	0.050	-0.0790	-6.640	10658	0.000
교육수준(B3)	G30	0.537	0.077	0.087	6.946	10658	0.000
개인수입(B4)	G40	0.089	0.073	0.017	1.222	10658	0.222
범죄피해(B5)	G50	2.232	0.250	0.0793	8.946	10658	0.000
확률효과		표준편차	변량요소		자유도	카이제곱	P 값
절편	U0	2.612	6.823		417	2103.762	0.000
범죄피해두려움	R	6.474	41.918				
Deviance	=	70848.61	(DF=2)				

V. 결 론

이 연구는 2009년도 한국범죄피해조사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구성원들의 범죄두려움과 그것의 설명요인을 알기 위해 여러 모델들을 검증하고자 했다. 이 연구는 개인수준의 변인을 고려하는 취약성모델이외에 지역수준의 영향력을 다루는 무질서모델, 사회통합모델, 그리고 지역사회경찰활동모델을 검증하고, 특별히 거시지

역수준의 개인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의 다수준적 검증에 관심을 가졌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우선 개별적으로 모델들을 검증한 결과로는 개인수준변인들의 영향력이 크게 유의미하여 취약성모델이 어느 정도 가장 크게 지지되었고, 아울러 무질서모델과 지역사회경찰모델도 지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통합모델에서는 지역구조적 특성으로 지역경제수준이외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변인은 없었으며, 그나마 지역경제수준도 사회통합모델과 기존 외국연구와는 다르게 지역경제수준이 높은 지역의 구성원들이 범죄두려움을 더 겪는 것으로 조사되어 그 지지도는 가장 낮았다. 보다 정확한 분석은 여러 변인들이 서로 통제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표 4>의 최종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최종적인 분석에서도 거의 유사한 결과가 제시되었다. 개인수준요인들로는 개인수입을 제외하고, 성, 연령, 교육수준, 그리고 개인피해경험이 모두 $p<.001$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졌다. 그러나 여성이, 그리고 과거에 피해경험이 있는 사람이 더 두려움을 느낀다는 결과는 취약성모델과 일치했으나, 연령과 두려움과는 부(-)적 관계이고, 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두려움을 더 겪는다는 결과를 제시해 취약성모델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제시되었다. 지역수준요인 중에서는 사회적 무질서가 가장 큰 영향력을 제시했고, 아울러 물리적 무질서의 영향력도 어느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나 무질서모델을 크게 지지했다. 아울러 지역사회경찰활동이 높은 지역에서 범죄두려움이 낮다는 결과를 제시해 지역사회경찰활동모델도 어느 정도 지지되었다. 하지만 사회통합모델과는 달리 지역유대나 비공식통제에의 참여와 같은 요인들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고 오히려 경제수준이 높은 지역의 성원들이 범죄두려움을 더 경험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지역수준의 변인들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보면 본 연구결과는 기존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사회통합모델보다는 무질서모델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지역주민들의 유대와 비공식 범죄통제활동에의 참여보다는 지역의 환경이 범죄두려움에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지역주민의 범죄두려움 해소를 위해 지역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아울러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중요성이 큰 것을 보면 범죄두려움에 있어서는 비공식통제보다 어느 정도 공식기관의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지역주민들의 범죄두려움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보다 적극적인 범죄예방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를 또한 무질서모델 결과와 연관지워 보면 지역경찰이 순찰과 같은 범죄예방활동이외에도 지역의 무질서 해결에도 보다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영향이 무질서나 사회과정변인들에 의해 매개될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그 직접적인 영향력이 큰 것을 보면 경찰의 역할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비록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모델에서의 지역유대나 비공식통제에의 참여의 영향력은 낮았으나 그것은 차후 세밀한 분석을 요한다. 지역주민들이 범죄예방의 비공식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그 지역이 이미 범죄발생우려가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지역은 범죄두려움이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결과는 사회통합모델의 예측과 달리 그 관계가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외국의 연구를 보면 하층의 빈곤 혹은 흑인비율이 높은 범죄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집합적 효율성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있고 그 영향력이 검증되듯이, 실제로 범죄발생우려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할 때 과연 지역유대가 높고 비공식통제활동에의 참여가 높을 곡에서 두려움이 감소하는지의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연령의 경우 취약성모델과 달리 연령이 낮을수록 두려움을 더 겪는다는 결과를 제시했는데, 그것은 젊은층이 밤늦게 집밖 외출이 많아 범죄위험에 더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취약성모델에서의 주장대로 과연 따로 노인층이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서 두려움을 더 겪는지의 세밀한 분석을 요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은 지역의 구성원들이 오히려 더 범죄두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볼 때 그것은 그러한 상류층 사람들이 자신들이 범죄자들로부터 좋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한 점에서 새로운 설명모델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범죄두려움에 관한 몇몇 주요 모델들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개인수준변인들이외에 지역수준의 변인들도 중요하다는 다수준적 접근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존 모델들에서의 주장과는 상이한 결과도 도출되는 바 앞으로 세밀한 분석과 또 새로운 모델의 구성도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 박정선, 2003. 다수준적 접근의 범죄학적 활용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14(4):281-314.
- 이성식, 2000a. 거주지역의 특성과 범죄두려움. 형사정책연구 11(1):117-139.
- 이성식, 2000b.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범죄두려움.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0:133-159.
- 최인섭, 김지선, 1996. 범죄의 두려움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Bellair, P.E. 1997. Social interaction and community crime: examining the importance of neighbor networks. Criminology 35:677-704.
- Braungart, M.M., R.G. Braungart, and W.J. Hoyer. 1980. Age, sex, and social factors in fear of crime. Sociological focus 13:55-66.
- Bursik, R.J. and H.G. Grasmick. 1993. Neighborhood and Crime: The Dimensions of Effective Community Control. New York: Lexington Books.
- Carcach, C., P. Frampton, K. Thomas, and M. Cranich. 1995. Explaining fear of crime in Queensland.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1(3):271-287.
- Clemente, F. and M.B. Kleinman. 1977. Fear of crime in the United States: a multivariate analysis. Social Forces 56:519-30.
- Covington, J. and R.B. Taylor. 1991. Fear of crime in urban residential neighborhoods. Sociological Quarterly 32:231-249.
- Ferguson, K.M. and C.H. Mindel. 2007. Modeling fear of crime in Dallas neighborhoods: a test of social capital theory. Crime and Delinquency 53(2):329-349.
- Ferraro, K.F. 1995. Fear of Crime: Interpreting Victimization Risk.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Ferraro, K.F. and R. LaGrange. 1987. The measurement of fear of crime. Sociological Inquiry 57:70-101.
- Franklin, T.W., C.A. Franklin, and N.E. Fearn. 2008. A multi-level analysis of the vulnerability, disorder, and social integration models of fear of crime. Social Justice Research 21:204-227.

- Gibson, C.L., J. Zhao, N.P. Lovrich, and M.J. Gaffney. 2002. Social integration, individual perceptions of collective efficacy, and fear of crime in three cities. *Justice Quarterly* 19(3):536-563.
- Kanan, J.W. and M.V. Pruitt. 2002. Modeling fear of crime and the perceived victimization risk: significance of neighborhood integration. *Sociological Inquiry* 72:527-548.
- Kelling, G.L. and C.M. Coles. 1996. *Fixing Broken Windows*. New York: Touchstone.
- LaGrange, R., K.F. Ferraro, and M. Supancic. 1992. Perceived risk and fear of crime: role of social and physical incivilitie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9:311-34.
- Lewis, D. and G. Salem. 1986. *Fear of Crime: Incivilities and the Production of a Social Problem*.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Books.
- Liska, A.E., A. Sanchirico, and M.D. Reed. 1988. Fear of crime and constrained behavior. *Social Forces* 66:827-837.
- McCree, R., T. Shyy, J. Western, and R.J. Stimson. 2005. Fear of Crime in Brisbane: individual, social and neighborhood factors in perspective. *Journal of Sociology* 41(1):7-27.
- McGarrell, E.F., A.L. Giacomazzi, and Q.C. Thurman. 1997. Neighborhood disorder, integration and the fear of crime. *Justice Quarterly* 14:479-499.
- Morenoff, J.D., R.J. Sampson and S. Raudenbush. 2001. Neighborhood inequality, collective efficacy and the spatial dynamics of urban violence. *Criminology* 39:517-33.
- Perkins, D.D. and R.B. Taylor. 1996. Ecological assessment of commun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4:63-107.
- Roh, Sunghoon and W.M. Oliver. 2005. Effects of community policing upon fear of crime. *Policing* 28(4):670-683.
- Rountree, P.W. and K.C. Land. 1996. Burglary victimization, perception of crime

- risk, and routine activitie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3:147-180.
- Rountree, P.W. 1998. A reexamination of the crime-fear linkag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5:341-72.
- Salmi, S., M. Gronroos, and E. Keskinen. 2004. The role of police visibility in fear of crime in Finland. *Policing* 27(4):573-591.
- Sampson, R.J. and W.B. Groves. 1989. Community structure and crime: testing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774-802.
- Sampson, R.J., S. Raundenbush, and F. Earls. 1997. Neighborhoods and violent crime: a multilevel study of collective efficacy. *Science* 277:918-924.
- Sampson, R.J. and S. Raundenbush. 1999. Systematic social observation of public spaces: a new look at disorder in urban neighborhood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603-651.
- Scheider, M.C., T. Rowell, and V. Bezdikian. 2003. The impact of citizen perceptions of community policing on fear of crime. *Police Quarterly* 6(4):363-386.
- Silver, E. and L.L. Miller. 2003. Sources of informal social control in Chicago neighborhoods. *Criminology* 42(3):551-583.
- Skogan, W. 1990. *Disorder and Decline: Crime and the Spiral of Decay in American Citi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kogan, W. and M.G. Maxfield. 1981. *Coping with Crime*. Beverly Hills: Sage.
- Skogan, W. and S.M. Harnett. 1997. *Community Policing, Chicago Styl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Taylor, R.B. and M. Hale. 1986. Testing alternative models of fear of crime.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77:151-189.
- Villarreal, A. and B. Silva. 2006. Social cohesion, criminal victimization and perceived risk of crime in Brazilian neighborhoods. *Social Forces* 84(3):1725-1753.

- Warr, M. 1984. Fear of victimization: why are women and the elderly more afraid? *Social Science Quarterly* 65:681-702.
- Will, J.A. and J.H. McGrath. 1995. Crime, neighborhood perceptions, and the underclass: the relationship between fear of crime and class positio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3:163-176.
- Wilson, J.Q. and G. Kelling. 1982. Broken windows. *Atlantic Monthly* 211:29-38.
- Wilson, W.J. 1996. *When Work Disappears*. Knopf.
- Wyant, B.R. 2008. Multilevel impacts of perceived incivilities and perception of crime risk on fear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5(1):39-64.
- Zhao, J.S., M. Scheider, and Q.C. Thurman. 2002. The effect of police presence on public fear reduction and satisfaction: a review of literature. *The Justice Professional* 15:273-299.

A Multi-Level Approach to Fear of Crime : Testing Four major Models

Park, Jeong-Seon · Lee, Seong-Sik

This study tests four major theoretical models to examine the reality and causes of fear of crime among Koreans utilizing the 2009 Korean National Victimization Survey data. It is interested not only in the individual-level approaches such as the vulnerability/victimization model, but also in the community-level approaches such as the disorder model, the social integration model and the community policing model. Study results show that individual-level approaches are more likely to be supported than community-level approaches so that the vulnerability/victimization model was the best model to be supported by data. In addition, the disorder model and the community-policing model also appeared to be supported by data among the community-level approaches. However, the social integration model was not supported in general except the variable of community SES(socio-economic status) as a characteristic of community structure. Even worse, the effect of the variable, community SES, appeared to be reversed comparing to the results of other previous foreign studies so that the residents of high-SES community perceived more fear of crime than those from low-SES community. This means that the social integration model has the lowest support among the tested four models. Through this study, we can confirm the fact that the existing major models on fear of crime are still effective in the process of applying them to Korea, and that the effect of community-level variables are as important as that of individual-level variables, which means that we need to apply the multi-level analysis rather than the uni-level analysis in the community studies. Nevertheless, as we have found some different results from the arguments

of previous models, it is quite necessary to construct more updated models and do more delicate analysis with the data in the future.

❖ Key words : Fear of Crime, Multi-level Approach, Vulnerability/Victimization Model

